

# 대학에 퍼져있는 ‘방관자’를 없애려면

교수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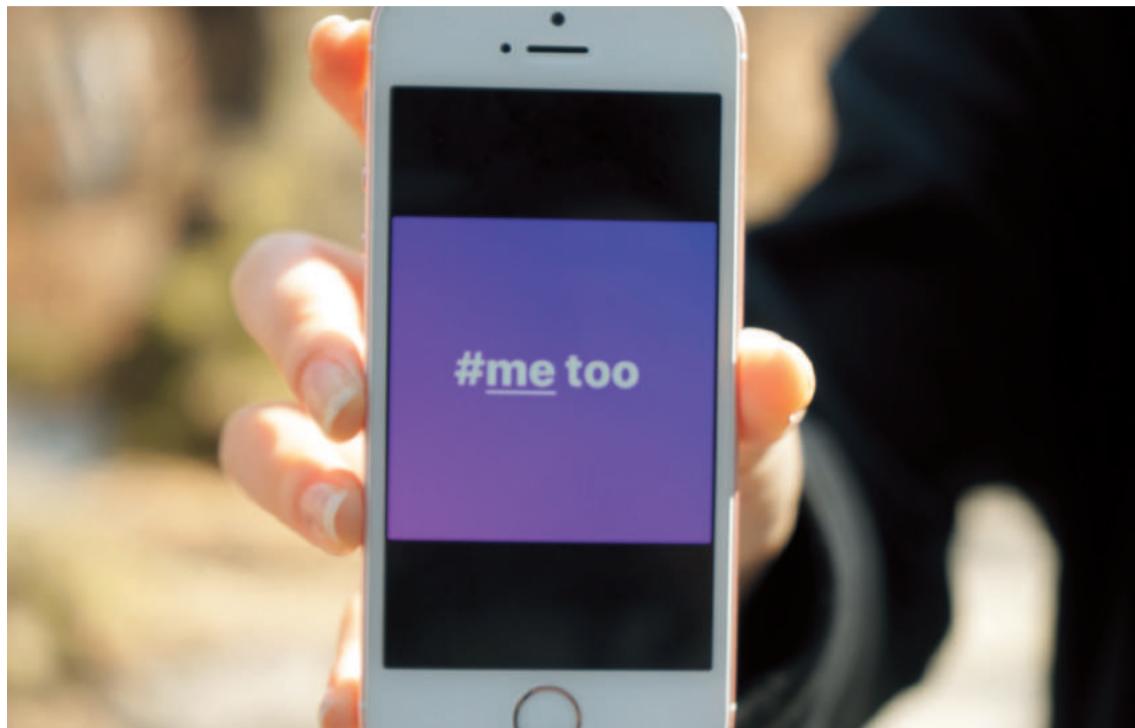
김은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16년 문단을 중심으로 “미투” (#MeToo)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는 깊은 각성에 이르지 못했다. 성폭력은 문단의 사정인 양 치부되었고,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부조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백한 후, 운동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고발을 접하며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면 대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웃음을 알고 있다. 그녀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이유 모를 폭력으로 괴로워하던 친구 한 명쯤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불어온 미투 열풍이 다행스럽게 여겨지기 조차 한다. 추악한 비밀을 봉인해 버린다면, 트라우마는 피해자를 집어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공감을 받기는커녕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들은 “쟤, 원래 이상하잖아”하는 식의 공격을 받고, “꽃뱀”이라는 프레임과 싸워야 한다. 꽤 똑똑하다는 이들조차 성폭력을 겪지 않는 애정 표현,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에 “예민하다”거나 “순진하다”는식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비밀을 삼킨 채 침잠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욕망을 반성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과도에 훨씬 더 사라지지만 가해자는 살아 남아 부와 명예를 챙기는 것이다. 미투 운동에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가 두려워 스스로 몸을 숨겼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번듯한 조직에 속한 예술가, 배우, 교수 등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



(사진=설지연 기자)

목되었다. 그들은 사회적 인정 투쟁에 실패한 ‘취약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 업적을 쌓아온 성공한 남자들이었다. 성폭력은 “훌륭한” 남자들이 권력을 독차지한 곳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임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 이 그들 중 다수는 욕망에 시달리는 ‘남자’ 말고 성숙한 ‘여론’은 없는가, 외치고 싶을 만큼 노년의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경악’보다, 혐오스러운 가해자를 통해 ‘여성’이 되어 보는 공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젊은 여성에게 세상이 넥타이를 맨 “괴물”들이 버티고 선 채 너를 키워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적 육체, 보살핌 노동, 정서적 위안을 요구하는 ‘지옥’임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능 있는 여자가 왜 모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었는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은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주의가 강하고 인간의 관계가 위계화된 곳 어디에서든지 죄악은 짜를 수 있다. ‘연희단 거리 패’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예술과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였다. 그곳에서 이윤택은 산업체 부

설 야간 학교를 운영해 이익과 명예 모두를 거머쥔 사업가처럼 단원들의 노동력과 재능을 이용해 흑자를 냈다. 그는 “너는 나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야”라고 단원들을 위협하며 자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다. 근면이 가져온 성과들은 우리가 업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안겨줘 조직을 신성화했기 때문에 황토방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섬세하고 예리한 감정을 잃게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수치심은 도덕 감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다.

대학은 성폭력의 예외 지대가 아니다. 대학 역시 교수/학생, 교수/행정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등등 인간이 구획되고 관계는 위계화된 신분 사회다. 또한 여성 교수 비율이 다른 사회 조직보다 낮고, 요직은 남자들이 독점한 가부장제의 마지막 신화 같은 곳이다. 물론 대학은 ‘인간성 실현을 위한 교육’을 내세우며 자기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 ‘인간’을 젠더, 계급, 인종, 지역 등 차이가 지워진 모호한 말로 전유한다면,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무능력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월의 대학가에서는 미투 열풍이 뜨겁게 불 것이다. 교수 성폭력, 학생 간 성폭력 등 ‘대나무 숲’에서 떠돌던 소문들이 오프라

인으로 나와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는 현재까지 대학이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 오지 않는다.

오래 전 꽃이 핀 봄 날에, 친구에게 서 시 쓰는 선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을 들었다. 그 때 나는 깊이 상처 입은 친구에게 쓸모 있는 말 한마디 해 주지 못했다. 마음이 아니라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즐겨 분석했지만, 자신의 젠더 경험을 해석할 언어가 없는, 자기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다. 지금의 여대생들은 예전의 우리와 다를까?

대학에서 ‘페미니즘’ 교과목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페미니스트=“꼴페미”라는 낙인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이번 미투 운동의 성과가 있다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도덕적 죄’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대학이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으면 늦기 전에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한다. ‘휴머니즘’이라는 모호한 말 뒤에 숨지 말고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것은 대학이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고 응원일 것이다.

## 오윤자의 마음 코칭 - ①

### 영미~ 내 이름을 힘껏 불러보세요

오윤자 교수  
(아동가족학)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닌 ‘아프면 환자’가 화제가 됐던 때가 있다. 이 일갈에서 우리는 청춘의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었다. 아프든 말든 쉽게 못하고, 열정을 강요받아야 하는 청춘들에게 마음 코칭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편집자주)

“1학년 때에도 그랬구요. 입시 끝나고 대학에 들어왔어도 허무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취업도 어렵다고 하니 무섭고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 줄지 궁금하다. 의욕 없음이 절절한 하소연을 듣다보면 우선 대2 병도 있겠다 싶다. 지워 같았던 입시를 치루고 났으니 자동적인 보상을 기대한 듯 하고 어수선하게 들리긴 해도 어딘지 모를, 무엇인지 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자신에 대한 언급에서 모르겠다는 공통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 두렵게 생각될 수 있어도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도 하다. 즉,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해결 가능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감각 유지에 주목해야 한다. 함께 생각해 보자. 지난 해 가을 캠퍼스에서, 단풍이 계절의 전부인 듯 단풍잎 가득한 나무들에 눈길을 맞추었는데 이후 한 일 두 일 떨어져 더 멋진 가을 길을 만들었고 그해 가을의 균형을 이루었다. 새해라 의미를 부여했던 1월이 아쉽게 지나가 염려가 있을 즈음 2월 동계올림픽으로 뜻밖에 일상의 황재

를 만나며 균형감각을 찾았다. 게다가 동계 올림픽에서 그동안의 관심은 스피드와 피겨 스케이트였는데 컬링과 스켈레톤으로 옮겨가며 관심과 종목의 쏠림 현상이 환기되었다. 더욱이 컬링에서 외쳐진 ‘영미’는 위기의 순간마다 경기의 균형을 찾게 하여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

#### ‘모르겠음’을 벗어나 균형감각 유지해야

아마도 알아챘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은 고3까지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방식으로 학교와 학원은 물론 그 외 생활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며 지내왔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면서 최소한 학교에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에 기반한 독립적인 생활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에서의 경험에 머무르기가 쉽다. 따라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심 타자의 결정을 기대하며 ‘잘 모르겠음’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뛴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인데 내가 아닌 타자가 오랫동안 선택과 결정을 해주었고 와중의 인생사건(life events)에서 나름의 성공을 성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활주기(life-cycle)가 변화된 발달단계에 위치한 청년기에서도 지속되면 사회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습관처럼 자신을 지배하기 쉽다. 그러나 의욕이 없고 매사 모르겠다고 일관할 밖에. 대2 병에서의 탈출을 위해선 균형감각 유지가 필요하다.

성격발달이론의 대가 Erik Erikson은 청년기의 발달과 개인 정체성을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인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성과 동질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통해 사회 속의 자

신을 형성해 간다. 여기서 균형감각의 유지는 통합적인 인간의 발달을 돋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교과목 숙제들로 다소 소홀했던 통합적인 정체성 발달을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균형감각의 유지를 본다.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균형을 이루게 하는 심리적 탄력성 내지 면역성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할 수 없음에 숨어있는 실체는 할 수 있음 내지 하고 싶음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바람대로 자신을 알아야 하니, 각자의 마음에 로그인해 들어가 보자. 자신에게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 보자. 잘될 것이라는

확신 있는 기대감을 가져 보자. 혹시 떠오르는 실수의 기억은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여 보자.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나는 대로 다만 서너 개만 적어 보자. 그 중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우선 시작해 보되, 모르겠음은 알 수 있음, 의욕 없음은 숨겨진 의욕 있음이라는 사실 중심의 균형감각 유지를 명심하자. 혼자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 상담사를 활용하는 방식 역시 균형유지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 스스로의 이름 부르기로 일어날 기적들

3월이 지날 즈음, 누군가에 의해 불려졌던 내 이름을 스스로 힘차게 불러 보자. 청년기는 사회적 정체성(누군가 부르는 내 이름)과 개인적 정체성(내가 부르는 내 이름)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없다고 생각했던 의욕은 이미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테니 확인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단순한 방향을 설정해 보기 바란다. 이후에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났을 균형유지의 소소한 기적들에 대해서 꼭 듣고 싶다.

## 참여마당

박원규  
(사학 2014)



## 2018-1학기의 대학사회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나?

우리 학생회 현실은 비참하다. 2018년은 유례없이 중앙단위대표자들이 전부 퀘워다. 2014년 이후 지속된 총학생회 단선, 참여율 저조 등 이미 몇 해 전부터 예견된 불상사다. 대학사회는 왜 더 비참해지는가? 필자는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제도 중 으뜸으로 주권자의 권리행사와 직결된 ‘선거제도’를 짚을 수 있다. 모든 문제 상황을 다룰 수 없으니, 최근 3년 간 필자가 참여한 중앙단위선거의 선거제도를 단적으로 제시해보겠다. 필자는 2016년 11월 중앙운영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로, 2017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위원으로, 2017년 11월 후보자로 각각 선거에 참여한 적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과 달리 학내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들에게 무척 관대하다. 일례로 2016년 11월 ‘경희의 화합’ 선본의 ‘성평등위원회 신설’ 공약이 이슈가 되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와 선본 측의 반박 대자보가 수차례 게시됐다. 이어 48대 ‘취향저격’ 선본의 ‘PRIME사업’, 49대 ‘열’ 일 선본의 ‘SPACE21 부실 건설 문제에 대한 입장’까지 모든 대자보는 겹겹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50대 선거 도중에 부착된 모든 대자보는 선관위의 겹열을 받았다. 중도사퇴한 중선관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대자보를 부착하기도 했다.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학생회 선거제도가 공직선거법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왔다면, 선거운영의 변화가 가능했을까? 나아가 당선자 결정 기준, 투표방법과 같은 제도를 결정할 때 주권자에게 의사를 물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 학생은 등록금, 학생자치회비 등 중요한 사안을 위임한 학생대표에게 질문해야하지 않을까?

위 예시의 선거제도는 2016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 만든 선거제도다. 2015년까지 사용된 선거시행세칙이 상위법인 총학생회칙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엄중히 따져 묻자면 그간의 선거 무효까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은 대표자들이 밀실에서 방만하게 만든 제도로 인해 초래된 사태였다. 대표자의 제1의 책무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다. 학생 대표자라면 응당 학생들의 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동체의 제도를 보완해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 학생들도 이를 최우선 가치로 대표자들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는 무엇보다도 학우의 참여가 있어야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 학생회와 제도가 무너진다면 당장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다. 경희대학교 학생사회에 위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향성에 대한 진중한 공론장이 열리길 희망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은 대학주보 온라인에 게재됩니다.